

11

11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공동체의 차원에서 질병해결을 접근하자

가을 환절기로 넘어가면서 수의사로서 무척 바쁘다. 갑자기 비육돈의 기침도 많아지니 관리하는 여러 곳의 농장에서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유산과 흑자도 많이 발생하고 점검할 사항도 많아진다. 아마도 다른 수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필자는 가을 환절기가 가장 바쁜 계절인 것 같다. 사람도 계절이 바뀌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많듯이, 돼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질병이 있는 농장에서의 돼지들은 더 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언제나 반복되는 일인데도 사람들의 대처가 늦어서 손실이 늘어날 때는 더욱 가슴이 아프다. 반복되는 사고, 반복되는 치료... 요즘 드는 생각이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장에서만 방역, 사양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농장의 성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다른 유관기관들과의 협조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 언급할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다.

도입되는 후보돈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십니까?

최근의 바람직한 현상들 중 하나는 여태껏 질병으로 죽어 나가는 농장들이 그냥 소모성질환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차 자기 농장의 질환이 무엇인지 검증해 나가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많은 농장들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여본 결과, 우리가 그냥 PMWS라고 생각하였던 질병들 중 상당수는 PRRS 문제였다. 아니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 이 질병을 컨트롤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된다. 후보돈의 순치 프로그램, 백신, 올인/올아웃 등 수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그런데 정말 문제인 것은 우리가 농장에 도입하는 후보돈과 정액이 간혹 PRRS에 오염이 되어서 도입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농장들에서 이 사실도 모른 채 후보돈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농장에 계속적으로 오염원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의사로서 약품과 백신으로 농장의 질병을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질병이나 질병의 원인체가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큰 업무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농장에 가보면 의외로 농장에 들



김 경 진 원장
돼지와 건강 수의그룹

어오는 후보돈이나 정액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농장에 계속적으로 질병 원인체가 들어와서 농장을 질병의 도가니로 밀어 넣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되는데, 겨울철에 종돈장에서 PED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종돈장에서 모르고 분양하여 고객농장에 PED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경우 농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차단방역 조치를 하더라도, 질병의 발생은 막을 수가 없다. 비단 PED만 그러하겠는가? PRRS, 홍막폐렴 등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병들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외부도입돈(종돈과 정액이다)의 위생 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내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지만, 내가 무슨 질병인지 알고 있고, 또 새로이 질병이 도입되지만 않는다면 그 질병은 언젠가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질병이 계속 농장에 유입된다면 질병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들과 종돈장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태껏 종돈장들이 위생 수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면,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양돈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옆 농장의 질병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몇 군데 양돈 밀집 지역은 농장과 농장이 서로 가까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많다. 필자가 관리하는 몇 군데의 농장들도 반경 500미터 안에 다른 농장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농장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질병이 유입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실제로 올 봄 홍성



(사진 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돈단지의 예. 이런 단지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서 막대한 생산 성적의 차질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서로간에 질병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동의 차량 소독조를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간의 질병 상황을 공유해야 질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지역에는 PED가 매우 유행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일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공동 방역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서로 옆 농장의 위생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예 알리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 농장에서 질병이 터지면, 다른 농장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질병은 실제로 여러 가지 경로로 다른 농장으로 퍼져 나간다. 사람과 돼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새, 곤충, 쥐, 고양이등도 질병을 퍼트릴 수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다.

농장이 서로 붙어 있으면, 위의 매개체들로 인하여 전파가 쉽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동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건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이다. 나는 이런 경우, 공동으로 질병 검사도 하고 위생 관리하기를 권하는 편이다. 사실, 우리 농장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좀 기분 나쁜 일이긴 하다. 하지만 경영 수치까지 공개하라는 건 아니지 않는가? 서로의 질병 상황을 공

“양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료 공급자, 약품 공급자, 가축분뇨 처리업자, 수의사 등 많은 파트너십을 갖게 된다. 농장의 경영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우리 농장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각 농장간 파트너십을 통한 질병의 유기적인 차단과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 백신장도 맞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조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당신의 파트너에게 요구하자 - 서로의 상생을 위해서

양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파트너십을 갖게 된다. 농장에서 파트너들이란 사료 공급자, 약품 공급자, 가축분뇨 처리업자, 수의사 등 다양하다. 농장의 경영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파트너십을 갖는 것도 점점 더 중요해진다. 잘 크기 위해서 좋은 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력있는 수의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파트너십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농장을 많이 방문하고 정보도 많은데, 이를 농장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위생 문제도 중요하다. 나는 일단 농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위생 여건을 중요하게 보는데, 생각보다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약품 배달차가 왔는데, 그 전에 PED가 발생한 농장에 다녀오고 소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위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 하고, 위생 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농장을 무단으로 들어오고, 방역 절차를 안하는 파트너는 여러분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파트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필자가 컨설팅을 계약하는 농장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 차량 소독조의 개선과 샤워실이다. 방역복만으로 충분히 방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농장의 파트너들이 농장을 출입할 때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다. 당신의 파트너들은 요구하면 충분히 들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요구를 하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올 겨울에는 파트너들에게 방역에 대한 요구를 하자.

마치며...

점점 양돈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질병 상황도 어렵고, 사료값도 점점 더 오른다.

예전에는 나만 잘하면 돈을 버는 양돈이었다. 점점 나만 잘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가는 느낌이다. 점점 힘들어지는 업계의 현실, 백신장도 여러 사람이 들면 낫다고 했다. 옛말을 한 번 되새겨 볼 시간이다. **양돈**